

## 헤르만 바빙크의 속죄론 이해: 안셀름의 속죄만족설 해석을 중심으로

정찬도  
(성도교회)

### [초록]

몇몇 네덜란드 신학자들은 바빙크가 안셀름의 속죄만족설로부터 어떠한 용어도 차용하지 않았고 그 교리를 거부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바빙크가 당시 기독교 신앙의 신빙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할 때, 그는 안셀름적 용어를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을 수용하였다.

첫째, 바빙크는 죄의 본질적 성격을 능동적 결핍으로 정의하면서 어거스틴을 따르지만, 안셀름과 같이 죄를 그 성격 자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빛과 모욕으로 여긴다. 바빙크는 또한 안셀름과 같이, 속죄는 하나님 자신과 그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한다. 둘째, 바빙크는 안셀름 신학에서 ‘속죄’ 용어를 구원을 위한 조직적 결론으로 이해한다.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속죄뿐 아니라 대속으로 주장한다. 필자는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이 바빙크의 속죄론에 적절히 내포되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주제어 : 헤르만 바빙크, 안셀름, 속죄,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정의

논문투고일 2015.11.28. / 수정투고일 2015.12.26. / 게재확정일 2016.1.11.

### I. 서론

안셀름의 속죄만족설(*Anselm's satisfaction theory*)은 속죄의 절대 필요성을 하나님의 정의와 명예와 관련된 죄의 심각성에 두고 있다. 그의 속죄만족설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불명예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만족케 함으로 인해 인간이 구원 받게 됨을 말하고 있다.<sup>1)</sup>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의 주요 내용은 개혁주의 요리문답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발견된다. 요리문답의 저자들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1534-1583)와 카스파 올레비안우스(Kaspar Olevianus, 1536-1587)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필요성(5-6주)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 원하신다”(문답12)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한다”(문답16)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지拂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문답19). 요리문답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정의, 진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만족을 하나님의 죽음으로의 비하의 필수성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문답40). 또한 요리문답 5-6주차를 1주차와 관련하여 이해할 때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실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치고 있다.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론과 동일시되기도 하였지만, 혹자는 종교개혁의 속죄교리와 안셀름의 속죄만족설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안셀름은 하나님의 명예 손상에 대한 만족으로만 속죄론을 이해한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만족을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차원에서 이해하였고,<sup>2)</sup>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안셀름은 만족을 중

1) 루이스 벨코프, 『조직신학』(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626-27.

2) J. I. Packer, “What Did the Cross Achieve? The Logic of Penal Substitution,” *Tyn-dale Bulletin* 25 (1974)

심사상으로 말하고 있다면,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은 우리의 중보자요 보증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 개념을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한다는 것이다.<sup>3)</sup> 하지만 칼빈 역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으며 그의 정의로운 판결을 만족시켜드렸다”라 말하며 안셀름의 사상과 동일한 발언을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sup>4)</sup>

신학원리와 방법론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요리문답은 신인으로서의 중보자의 필요성을 중세의 안셀름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의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sup>5)</sup> 다시 말해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은 개혁주의 속죄론 확립에 다소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 또한 부인하기는 힘든 것처럼 보인다.<sup>6)</sup>

3) Jan van Genderen and Willem Hendrik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Kok, 1992), 475-76. 보라 *GD I*:120. 안셀름은 「모놀로기움」(Monologium)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Cur Deus homo*)에서 성육신과 속죄에 대한 논의에서 믿음이 지식으로 승격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는 플라톤의 대화 방식으로 이 증명을 시도하였으나 스킨라적 사색이 농후했다. 안셀름은 자연과 이성으로부터 성육신과 속죄를 증명하려 하였다 (*GD I*:273-74). 하지만 안셀름은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불신자들과의 논쟁 목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간과”(*remoto Christo*)의 원리에 근거하여 그의 전체 논쟁들을 이끌어 감으로 인해, 즉 성육신과 속죄를 이성에 의해 논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죄교리에서 믿음의 원리와 성경적 가르침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안셀름의 다른 저서들을 통해서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가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직접적인 성경구절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그의 속죄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저서들 (*Mon. Pros. DCV* 그리고 *DIV*)은 성경 구절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성경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Gillian Rosemary Evans, *Anselm* (Wilton, CT.: Morehouse-Barlow, 1989) 40; cf. Marilyn McCord Adams, “Anselm on faith and reason,” in Brian Davies and Brian Leftow, *The Cambridge companion to Ansel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44ff.

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2.16.6, 10.

5) Karl Barth, *Church Dogmatics*, ed. Geoffrey William Bromiley and Thomas Forsyth Torrance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I/2:10. 보라 H. Berkhof, *Christelijk geloof / druk 4* (Nijkerk: Callenbach 1979), 322; Gerard Cornelis den Hertog, “Enkele hermeneutische overwegingen rond de omgang met de belijdenis,” *Wapenveld* 42 (5)(oktober 1992), 120-26.

6) Adolf von Harnack, *History of dogma*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2005), II:310-12.

19세기 중반 이후 네덜란드 개혁 교회에서 속죄론은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 일으킨 주제였다. 만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이 개혁주의 속죄 교리에(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면, 네덜란드 개혁신학자들이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의 주제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네덜란드 개혁신학과 교회에 주도적 인물 중 한 사람인 헤르만 바빙크가 그의 신학에서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학에 반영하고 있는지,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은 바빙크 자신의 속죄 교리에서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우선 바빙크의 속죄론에서 안셀름의 이해를 논한 후(2장), 바빙크의 안셀름 해석에 대한 평가(3장)를 내린 뒤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바빙크의 안셀름의 속죄만족설 해석

개혁교의학에서 바빙크는 속죄 교리를 역사적으로 접근 한 뒤, 중세시대 안셀름의 신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안셀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고대의 사상들 중 하나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속죄 교리를 주창하였는데, 이에 대해 바빙크는 “안셀름의 새로움”(het nieuwe van Anselmus)이라 하였다.<sup>7)</sup> 바빙크는 안셀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만족(*satisfactio*)으로 여겼다. 안셀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적절하거나 알맞은 필수성이 아니라 절대적 필요로 여겼는데, 이와 같은 안셀름의 관점을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7)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II* (Kampen: J,H,Kok,1929), 324. 이하 GD로 표기함.

그가 발견했던 것은, 죄에는 언제나 반드시 징벌이나 배상이 뒤따르며,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원한다면, 다음 아인신인만 하나님께 그 보상을 치르고 그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신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자발적인 죽음은 매우 큰 가치를 지녔는데, 그 가치는 그리스도가 단지 형벌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무엇보다 공로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이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켰던 그 위치에서 인간을 위해 이 공로를 포기했다.<sup>8)</sup>

바빙크는 안셀름이 그리스도의 만족, 그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정의에 집중하였고, 죄, 정의, 신인의 개념에 대한 개혁신학의 바탕을 제공하였고,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이 “영구적 의미”(een blijvende betekenis)가 있음을 표명하였다.<sup>9)</sup> 개혁신학은 계시에 의존하여 보다 객관적 속죄 교리를 강조하고자 하였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개념에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 개념을 추가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능동적-수동적 순종과 그의 구속 사역을 삼중적 개념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위의 인용에서 볼 때에,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은, 죄가 형벌 혹은 만족을 요구하고, “신인”(Godmens)만이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속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인으로써 자신의 자유의지로 능동적 죽음을 택하셨고 사람들의 구속을 위한 충분한 가치와 유익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이 유익을 포기함으로써 인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셨다고 말한다. 이러한 요점들은 바빙크가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우리를 이끈다.

8) GD III:324-25.

9) GD III:324, 326.

## 1. 죄와 하나님의 명예

바빙크는 안셀름이 죄를 모욕으로, 그리고 만족을 명예의 회복으로 이해하였다고 본다. 바빙크 시대에 안셀름의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에 대한 봉건주의적 해석은 안셀름을 속죄 교리에 매우 거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비록 바빙크가 안셀름의 죄의 개념을 “모욕”(belediging)과 “사법적 특성”(het privaatrechtelijk karakter)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을 봉건주의적이고 게르만의 법률적 관점에서 새로운 이론으로 보지 않았다. 바빙크는 오히려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을 “어거스틴 이후 전해 내려오고 안셀름 전후의 중세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고대 교리사적 발전의 조직적 결론”이라 말한다.<sup>10)</sup> 바빙크는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을 교리의 역사적 발전에 따른 열매로 여긴다.<sup>11)</sup>

안셀름은 죄를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불명예로 보고, 죄로 인해 훼손되고, 상처 받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강조한다. 바빙크는 죄의 무거움을 심각하게 다룬 안셀름의 강조점에 동의하지만, 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안셀름 보다는 아타나시우스와 어거스틴의 뒤를 따른다.<sup>12)</sup> 어거스틴과 같이 바빙크는 죄를 결핍의 의미로 이해하고, 창조에 대한 성경적 증거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에서 죄와 타락을 이해하고자 한다.<sup>13)</sup>

하지만 바빙크에게서 안셀름의 죄론과 유사점을 무시할 순 없다. 바빙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성과 목적을 논하면서, 죄의 다양한 형태를 언

10) GD III:382; Friedrich Loofs, *Leitfaden zum Studium der Dogmengeschichte* (Halle a.S.: Max Niemeyer, 1906), 509ff; Adolf von Harnack,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4e, neu durchgearb. Aufl (Tubingen: J. C. B. Mohr), II:178ff.

11) E. von Moeller, “Die Anselmsche Satisfactio und die Busse des germanischen Strafrechts,” *Theologische Studien und Kritiken* (1899), 627-34.

12) GD III:116.

13) GD III:17-24.

급할 때, 죄는 불이행, 어리석음, 오염, 불순, 부끄러움 등으로 정의되었으며, 죄를 빗 혹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도 본다.<sup>14)</sup> 바빙크는 “명예”(eer)를 “영광”(gloria Dei)과 동의어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명예를 돌려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의 모든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데, 바빙크는 명예를 바른 혹은 불변의 질서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과 그의 명예를 그의 자유를 통해 이루신다고 보기 때문이다.<sup>15)</sup>

바빙크는 안셀름의 신학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특히 중세 신학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정당하게 다루어졌는데, 안셀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성육신과 속죄에 관한 가르침의 원리로 삼았으며...”<sup>16)</sup> 바빙크 역시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실 때에, 그가 진실로 하나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sup>18)</sup> 하나님께서 그 자신 안에서 영광이심을 말한다. 바빙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sup>19)</sup>

안셀름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즉 형벌과 만족을 제시한다. 안셀름은 이 둘을 구분하지만, 형벌을 건너뛰고 만족에 집중한다.<sup>20)</sup> 바빙크는 이 구별을 비판하며 인생에서 형벌의 다섯 가지 성향, 즉 죄책, 오염, 고난, 죽음,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언급한다.<sup>21)</sup> 바빙크는 형벌을 하나님의 정의의 결과들뿐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 해석하는데, 형벌은 하나님의 정의의 회복과 유지를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말한다.<sup>22)</sup>

이어서 바빙크는 소시니안에 반대하며 하나님께서 속죄함 없이 죄용서가

14) GD III:359.

15) GDI:449. 보라 GDI:212, II:80, II:222.

16) GD II:397.

17) GDI:216.

18) GD II:298.

19) GD II:322, 348, 396-97.

20) GD III:324-25.

21) GD III:150-73. 보라 GD III:170; Herman Bavinck, *Christelijke wereldbeschouwing* (Kampen: Kok, 1913), 28.

22) GD III:140, 148.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정의의 방법 혹은 형벌의 방법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바빙크에 의하면 안셀름은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의 조건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인의 속죄에 의해 오직 죄 용서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명예의 회복으로 인해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성육신하여야만 했고, 하나님을 위해 속죄를 성취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죄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안셀름의 성육신과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 관점을 거부하고,<sup>23)</sup> 성육신과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적합한 것”이었음을 말한다.<sup>24)</sup> 바빙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제한과 하나님의 임위성 중 하나를 택하기 보다는 중간 길을 선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육신과 속죄의 필요성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본다.<sup>25)</sup> 바빙크는 어거스틴과 같이 하나님의 의지는 그의 본질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일어난 일과 분리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sup>26)</sup> 성육신과 속죄가 필수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기 때문이며,<sup>27)</sup> 그 승귀와 비하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sup>28)</sup>

바빙크는 안셀름의 속죄만족설과의 불일치를 죄의 여섯 가지 특징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구속의 필요성을 말하는데,<sup>29)</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한다.

성육신과 속죄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에 의해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발생했던 것이다. 죄란 하나님과 하

23) GD III:324-25.

24) GD III:356.

25) GD II:198.

26) GD II:209, III:37.

27) GD III:356.

28) GD III:230-31.

29) GD III:355-59.

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거부하는 것이며, 피조물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신의 모든 속성들을 입증하고,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신성을 옹호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일차적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sup>30)</sup>

바빙크는 안셀름과 같이 하나님의 명예회복을 성육신과 속죄의 일차적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영광이 그의 뜻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육신과 속죄의 목적으로 말한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그의 피조물에 의해 다시 인정받고 명예로워지는 것은 그의 영광의 계시를 포함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자신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데, 이는 성육신과 속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 2. 그리스도의 순종

안셀름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순종으로 해석하였다. 바빙크는 안셀름의 속죄교리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신을 위한 의무였으며, 그의 속죄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있다고 말한다. 즉 안셀름에게 고난과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신에 의한 공덕의 사역으로서 자신의 삶에 더해졌고 성부에게 자발적인 선물”이었다.<sup>31)</sup> 여기서 두 가지 점을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안셀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리스도의 전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과 죽음에만 집중한다. 둘째,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자발적 속죄 사역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을 향한 의무 이상의 일로 간주한다.

30) *GD* III:359.

31) *GD* III:363.

바빙크는 안셀름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주저함 없이 말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죄는 의와 생명을 얻기 위한 인간의 죄와 죄책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안셀름의 가르침이 후대의 신학에 영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죄 그 자체와 죄책으로부터의 구속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크게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화해로 구성되어 있다.<sup>32)</sup> 안셀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 혹은 사탄의 권세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와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한다. 바빙크는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에서 구속과 화해 이 두 가지 점을 말한다.

바빙크는 안셀름의 관점인 그리스도의 능동적 자발적 순종에 동의한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 안셀름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만 집중하여 그의 자발적 속죄를 말한다면,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전 사역을 “순종”으로 요약하여 절대적 순종과 완전한 희생제사로 말한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한 뜻을 위한 그의 지상 사역이었다.<sup>33)</sup> 그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 안에서 전 인격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sup>34)</sup>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의 죄의 값을 위해 고난 당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죽으셨다.<sup>35)</sup>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히 형벌을 대신 지시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 행위이다.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아주 간결하게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고난, 성육신으로 시작되었으나 위대한 수난 가운데 완성된, 성부의 뜻과 명령이며(마 26:39, 42; 요 10:17, 18), 그리스

32) *GD* III:326.

33) *GD* III:383.

34) *GD* III:366.

35) *Heidelberg Catechism, Lord's Day 6 Q/A 16-17.*

도의 절대적 순종의 증거이며(빌 2:8; 히 5:8), 그의 제자들이 따를 본이며(벧전 2:21), 그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며(마 20:28, 26:28), 세상에 대한 승리다(요 16:33; 골 2:15).<sup>36)</sup>

바빙크는 안셀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만 집중한 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법과 요구의 성취와 충만이며, 그의 전 생애와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완벽한 희생제사였음을 주장한다.

### 3. 속죄(satisfactio)와 대속(satisfactio vicaria)

바빙크는 안셀름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신적으로 제정된 방법으로써의 속죄로 본 최초의 신학자로 여긴다.<sup>37)</sup> 그의 속죄 개념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데, 즉 성경은 그리스도의 전 사역을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와 그의 요구의 만족으로 여긴다.<sup>38)</sup>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을 속죄 혹은 만족 뿐 아니라 대속으로 이해한다.<sup>39)</sup>

여기서 바빙크는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에서 안셀름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한편으로 안셀름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만족)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빙크는 그 개념에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전적 순종을 대속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대속 개념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의 참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바빙크의 대속 사상에 대한 명료치 못한 점을 있음을 발견한다. 비록 그가 이 둘을 분명히 구분 짓지만, 그의 신학에서 이 둘

36) *GD* III:400.

37) *GD* III:382.

38) *GD* III:383.

39) *GD* III:385.

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첫째로, 바빙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계시로 보는 몇몇 현대 신학자들이<sup>40)</sup> 안셀름의 속죄 교리를 어거스틴의 속죄 교리와 함께 대속교리로 이해하고, 안셀름의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법률적 속죄의 대리 개념으로 언급한다.<sup>41)</sup> 바빙크가 안셀름의 속죄 교리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피상적임을 지적하지만, 이들의 비판은 단순한 정보적 지식뿐 아니라 안셀름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바빙크는 말하기를 “속죄(een satisfactio)뿐 아니라, 그것은 대속(een satisfactio vicaria)이다”라고 말한다.<sup>42)</sup> 비록 바빙크가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을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 하나님의 명예의 회복 개념으로 해석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만족으로 보는 안셀름의 관점을 거부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바빙크는 이를 교리의 발전 속에서의 역사적 결론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속을 논하기 전 속죄에 대한 설명에서 바빙크는 “우리를 위해”를 두 번 사용한다.<sup>43)</sup> 이 두 번의 용례는 바빙크가 대속을 논할 때 사용한 “의 유익을 위해”, “을 위해”, “로 인하여”, “때문에”, “의 이유로” 용어들과 구별되지 않는다.<sup>4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는 대속의 필요성 그 자체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으로 설명한다.

### III. 평가

바빙크 당시의 네덜란드를 비롯한 현대 신학적 경향은 객관적이고 법적 인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개념을 인간 안에서 변화에 초점을 둔 인간

40) 바빙크는 현대신학자들 (e.g. John Taylor)이 안셀름의 속죄 교리를 어거스틴과 같이 대속 개념으로 이해한 것을 언급한다. 보라 *GD* III:333.

41) *GD* III:333.

42) *GD* III:385.

43) *GD* III:383-85.

44) *GD* III:388.

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바빙크는 비록 과학, 계시 철학, 신학적 심리학, 문화 그리고 교육 이론 등에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며 현대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씩씩하였다. 하지만 바빙크는 믿음의 확신을 과학적 증명의 결과들이나 개인의 주관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 권위로써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였다. 바빙크는 그의 성경관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능동적-수동적 순종의 길을 객관적이고 대속적 속죄교리로 주장한다. 즉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속죄 사역과 완전한 희생제사를 위한 하나님에 의한 수동적 의무와 절대적 순종으로 이해하였다.

서론에서 필자는 바빙크의 속죄론에 대한 이해를 안셀름의 속죄만족설과의 관련 지어 살펴 볼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바빙크와 안셀름의 속죄론에 있어서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죄에 대해 “모욕”, “명예”, 그리고 “사법적 성격”, 그리고 “빛”과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이해함을 언급하였다. 속죄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바빙크의 속죄교리에서 안셀름의 속죄만족설에 대해 후다 H. 보르허-쿠트시어(Guda H. Borger-Koetsier)가 평하기를 바빙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에 우선성을 둔 안셀름의 속죄만족설로부터 어떠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평한다.<sup>45)</sup> 롴프 H. 브렘머(Rolf H. Bremmer) 또한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새신학의 견해를 폭넓게 연구함으로써 인해 안셀름의 속죄 교리에 반대하여 자신의 속죄교리를 펼쳤다고 한다.<sup>46)</sup> 하지만 보르허-쿠트시어와 브렘머가 바빙크가 안셀름의 속죄만족설로부터 어떠한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브렘머

45) Guda H. Borger-Koetsier, *Verzoening tussen God en mens in Christus: theologisch onderzoek naar de opvattingen in het twintigste-eeuwse Nederland* (Zoetermeer: Boekencentrum, 2006), 86.

46) Bremmer, *Herman Bavinck als dogmaticus*, 252.

는 안셀름의 속죄교리를 반대하였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빙크는 안셀름의 용어의 채용하였고, 안셀름의 속죄만족설과 전혀 다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의 속죄만족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에서 안셀름의 속죄론에 대한 연구는 논의의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 [Abstract]

#### Atonement in the Thought of Herman Bavinck (1854~1921):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nselm's Satisfaction theory

Chan Do Chung (Sungdo Church)

Some Dutch theologians considered that Bavinck did not use any term from Anselm's satisfaction theory and also opposed it. However, when Bavinck wrestled to give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the reliability of the Christian faith in modern world, he used certain terms of Anselm and he partially accepted Anselm's satisfaction theory.

First, Bavinck followed Augustine in the crucial character of sin, defining it as an active privation, but like Anselm, he perceived sin as a debt or affront to God in its

character. Bavinck, like Anselm, stressed that satisfaction is purposed to restore God Himself and His glory. Second, Bavinck provided an interpretation on the term 'satisfaction' in Anselm's theology as the systematic conclusion for salvation. Bavinck stated Christ's sacrifice as not only a satisfaction, but also as a vicarious satisfaction. I may say that Anselm's satisfaction theory is properly incorporated in Bavinck's atonement view.

Key words : Herman Bavinck, Anselm, Satisfaction, Christ's death, God's justice

#### [참고문헌]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edited by Geoffrey William Bromiley and Thomas Forsyth Torrance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Bavinck, Herman. *Christelijke Wereldbeschouwing*. Kampen: Kok, 1913.
- . *De Wetenschap Der H. Godgeleerdheid*. Kampen: G.Ph. Zalsman, 1883.
- . *Modernisme En Orthodoxie*. Kampen: Kok, 1911.
- Beach, J. Mark. "Abraham Kuyper, Herman Bavinck" and "the

- Conclusions of Utrecht 1905".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19 (2008).
- Berkhof, H. *Christelijk Geloof / Druk 4*. Nijkerk: Callenbach 1979.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Davies, Brian and Leftow, Bria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nsel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Evans, Gillian Rosemary. *Anselm*. Wilton, CT.: Morehouse-Barlow, 1989.
- Genderen, Jan van and Velema, Willem Hendrik.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Kok, 1992.
- Harnack, Adolf von. *History of Dogma*.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2005.
- .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4e, Neu Durchgearb. Aufl.* Tübingen 1909.
- Hertog, Gerard Cornelis den. "Enkele Hermeneutische Overwegingen Rond De Omgang Met De Belijdenis." *Wapen veld* 42 (5) (oktober 1992).
- Hoekema, Anthony 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953.
- Hoekstra, T. *Gereformeerde theologisch tijdschrift* 22 (1921).
- Loofs, Friedrich. *Leitfaden Zum Studium Der Dogmengeschichte*. Halle a.S.: Max Niemeyer, 1906.
- Meijers, S. *Objectiviteit En Existentialiteit: Een Onderzoek Naar Hun Verhouding in De Theologie Van Herman Bavinck En in Door Hem Beïnvloede Concepties*. Kampen: Kok, 1979.

- Meijers, Sijtse. *Objectiviteit En Existentialiteit*. Kampen: Kok, 1979.
- Moeller, E. von. "Die Anselmsche Satisfactio Und Die Busse Des Germanischen Strafrechts". *Theologische Studien und Kritiken* (1899).
- Packer, J. I. "What Did the Cross Achieve? The Logic of Penal Substitution". *Tyndale Bulletin* 25 (1974).
- Praamsma, Louis. *The Church in the Twentieth Century: Elect from Every Nation*. St. Catherines, Ontario: Paideia Press, 1981.
- Til, Cornelius Van. "Bavinck the Theologian". *WTJ* 24 (1961).  
———. *Bavinck the Theologian*. Philadelphi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61.
- Veenhof, Jan. *Revelatie En Inspirat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1968.

## 부록

- 168 「갱신과 부흥」 편집위원회 규정
- 171 개혁주의학술원 연구윤리 규정
- 173 논문투고 및 심사 규정